

K-낙농기술, 우즈베키스탄서 성과

농촌진흥청, 수정란 수태율 50%·우유 생산량 증가 입증...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농촌진흥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한 한국형 낙농기술 실증사업이 생산성 향상과 수출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K-농업기술의 해외 확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은 K-농업기술 해외 진출 모델 확산사업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형 낙농기술과 관련 제품을 현지 여건에 맞게 실증한 결과, 우유 생산성과 번식 효율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 K-농업기술 실증단지(수정란 수정란과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등 총

10종의 제품을 현지 환경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축산 생산성 향상 수요가 높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여건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증 결과 한국형 낙농기술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실험군의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은 대조군보다 약 2.4kg 많았으며, 한국산 수정란을 이식한 개체의 수태율은 50%를 기록해 일 반적인 수입 수정란의 평균 수태율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사업에는 국내 수출기업들도 참여해 제품의 성능과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실증 제품 4종이 우즈베키스탄 인허가 등록을 완료했

으며, 이 중 2종은 총 8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증과 수출 연계 모델을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카자흐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별 축산 환경에 맞춘 맞춤형 낙농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카자흐스탄에는 고능력우의 질병 관리 중심 생산성 향상 기술 패키지를, 말레이시아에는 열 스트레스 저감과 위생·질병 관리 중심의 우유 생산성 향상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축 유전능력 개량을 위한 기반 기술 패키지를 추가로 투입해 사업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수정란 및 동물약품 생산기업 방문을 지원하는 등 한국 낙농기자재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광호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은 "우즈베키스탄 실증사업은 한국형 낙농기술이 현지 축산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추가 수출과 다른 국가로의 실증사업 확대로 연결해 K-낙농기술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2026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전'을 개최했다.

전북 여성기업 우수제품 한자리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전시·판매 홍보전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도내 여성기업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판매 홍보전을 열었다.

전북지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2026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전'을 개최하고, 여성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장에는 식품과 생활용품,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전시·판매대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소정미 전북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여성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으며, 장삼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영민 전북특별

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제10대 임원진 등이 참석해 여성기업의 성장을 응원했다.

이번 홍보전에는 시월애봄날, 진포사회, 네추럴그린(주), 작은창문풍경 스물윈도우 전주점, (주)더담누리, 레옹안경콘택트, 다원컴퍼니, 플라리아카메이, 바이오엔슈티 등 모두 9개 여성기업이 참가해 대표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홍보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에는 공영홍쇼핑 관계자와 참여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이 진행돼 홍쇼핑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과 판매 전략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향후 입점 및 방송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도내 중소기업 3분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북경진원, 경영·세무·수출 등 14개 분야 1대1 컨설팅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분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을 7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신속하

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경진원은 올해 상반기(1·2분기) 동안 총 280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업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에 따라 3분기 사업 역시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분야는 기업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14개 분야로, 경영전략과 인사·노무, 세무·회계, 판로·수출,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업별 애로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1대1로 매칭함으로써 단순 상담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k.kr)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상반기 동안 많은 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 현안 해결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을 받았다"며 "3분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전에 필요한 기업들이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세종대,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협력

국민연금공단이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손잡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원장 조원경)과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을 지원하고, '노후준비의 이해' 정규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강좌에서는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과 상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국민연금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는 노후준비 전문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순창 식품기업 수도권 판로 확대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순창군 식품기업들의 수도권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6 수원 팔도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 소재 우수 식품기업 6개사의 '2026 수원 팔도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우수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대규모 직거래 판매 전이다. 지역 특산품의 수도권 판로 개척은 물론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발효미생물산업진



흥원과 협력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순창군 소재 6개 식품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촉 활동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은 이조전통식품, 비블, 주식회사 희나리, 주식회사 맑은상회프앤비, 명지명가, 지터지푸드 등이다.

양 기관은 박람회 기간 소비자 반응과 바이어 상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화 지원과 판로 확대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스쿨팜' 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농협이 학교 텃밭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활용한 식(食)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6일 전주중앙초등학교에서 도시농업 기반 사업인 '스쿨팜'을 통해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 식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쿨팜은 전북농협의 도농교류 사업의 하나로 학교 내 유희부지나 자투리 공간에 텃밭과 버 체험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이다. /오상근 기자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올해 식체험은 스쿨팜 참여학교 25곳 가운데 전주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주·익산·군산 지역 15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